

타선·불펜 부진 KIA 용병 딜레마

로페즈·콜론 재계약 될까



방망이 보강 타자영입 초점

팬들·코칭스태프 감론을박

벌써부터 용병농사 '핫이슈'



호랑이들의 4강 탈락이 압박하면서 내년 시즌 구상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타자 용병'영입을 놓고 팬들은 물론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감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페넌트레이스 1위 팀으로 분주한 가을을 보냈지만 올 시즌에는 투·타의 동반하락 속에 5위까지 떨어지는 등 수모를 당했다. 4강 탈락을 눈앞에 둔 KIA는 내년 시즌 준비에 무게를 두고 9월을 보내고 있다. 2011 신인들은 6일 팀 기속사인 '맹호관'에 임소해 프로 데뷔 준비에 들어갔고, 다음달 중순부터는 마무리코치로 시작된다.

내년 시즌을 미리 그려보고 있는 팬들에게는 '용병'이 핫 이슈다.

용병 구상에 따라서 내년 시즌 큰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KIA 내부에서도 용병 조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시즌엔 로페즈와 구틀슨 두 용병이 27승을 합작해 준 덕분에 정규시즌 1위는 물론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달랐다. 로페즈는 시즌 초반 구위가 떨어져 상대팀 타선에게 난타당하는 경기가 많았다. 또 구원투수들의 난조와 타선의 비협조로 승수까지 쌓지 못하면서 '돌출행동'을 보여 벌금까지 내는 등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다.

두 차례 용병이 교체된 끝에 구틀슨을 대신하게 된 콜론은 뛰어난 친화력과 적응력으로 한국형 용병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 KIA의 토종 선발진들의 이탈과 불펜진의 붕괴까지 겹쳤고 타선의 답답한 침묵도 이어지면서 KIA는 이중고를 겪었다. 투·타의 동반몰락에 디펜딩 챔피언은 5위팀으로 추락했다.

마운드와 타선에 모두 구멍이 나서 '투수 용병 돌'과 '타자 용병 영입'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이 시작됐다. 내년 시즌 한기주의 선발진 합류 등이 예정되어 있고 시즌 내내 타선의 고전이 계속된다면 타선 보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과 올 시즌 부상이라는 뜻밖의 복병에 간신히 선발진을 꾸려

온 만큼 투수 용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로페즈와 콜론의 거취를 놓고도 고민이다. 로페즈는 미운오리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팀 내 가장 많은 이닝(153)을 소화하며 마당쇠 역할을 해냈다. '순한양'으로 변신한 로페즈는 시즌 막판 구위까지 살아나면서 지난해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메이저리대에서 중간계투로 활약했던 콜론은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볼을 앞세운 투구로 발전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긴 KIA는 오는 11월 조범현 감독까지 아시아계임 사령탑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내년 시즌에 대한 구상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 트리플A 리그 종료가 임박한 만큼 KIA는 용병 리스트가 재작성되는 대로 용병 전략의 큰 틀을 논의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지현(파란색)이 8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0세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 대회 그레코로만형 60kg급 패자부활전에서 그루지아의 라슈키 레바즈와 경기를 하고 있다.

정지현이 2-1로 이겨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선빈 "나도 한방"

프로데뷔 첫 홈런포... 팬·동료들 축하세례



KIA 내야수 김선빈이 7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기록한 뒤 백인호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인 홈런이 터지자 그동안 버리고 있던 선수들의 복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그라운드를 평정했던 최희섭·김성현의 CK포가 주춤하면서 팀 성적도 곤두박질쳤지만, 김선빈은 이용규의 만루홈런에 이어 '유쾌한 홈런쇼'를 선보이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의 '한방'이 KIA 팬들에게 모처럼 웃음을 선사했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7일 제 2의 안방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한방을 날리며 홈런타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1-1로 맞선 2회말에 타석에 선 김선빈은 한화 선발 유원상의 몸속 높은 직구(140km)를 힘껏 잡아당겨 좌측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만들었다.

2008년 프로 데뷔 이래 첫 홈런이자, 중학교 3학년 때 이후 처음으로 외야 펜스를 넘긴 타구였다.

프로야구 최단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단타자의 홈런에 KIA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덕아웃의 분위기도 평소보다 더 뜨거웠다. 홈런을 치고 들어 온 김선빈은 '온몸'으로 동료 선수들의 축하세례를 받느라 혼돈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요란한 축하세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평소 김선빈은 홈런을 치고 들어온 타자의 영영이를 발로 차거나 헬멧을 세게 두드리면서 홈런 타자들 사이에 '요주의 인물'로 통했었다. 김선빈의 극적

기량 급성장 선수 불시 도핑테스트

KBO 내년부터

기량 발전이 현격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따로 골라서 금지약물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부터 지적 검사를 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프로야구 도핑 테스트는 각 구단 1군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26명 가운데 5명씩 무작위로 추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BO는 도핑 테스트의 실질적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적 검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좋아지면 도핑 테스트를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다른 종목들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지적검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흑진주' 윌리엄스 4강 선착

US오픈 테니스... 남 단식 나달 8강행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4위·미국)가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4강에 가장 먼저 올랐다.

윌리엄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9일째 여자단식 8강에서 올해 프랑스오픈 챔피언 프란체스카 스카기아보네(7위·이탈리아)를 2-0(7-6(5) 6-4)으로 물리쳤다. 2000년과 2001년 이 대회 단식을 제패했던 윌리엄스는 2007년 이후 3년 만에 US오픈 4강에 다시 올랐다. 올해 메이저대회에서 호주 오픈, 윌버던 8강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던 윌리엄스는 또 개인 통산 8번째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에도 도전하게 됐다.

1회전부터 한 세트도 뺏기지 않고 순항중인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 남녀단식을 통틀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국 선수이기도 하다. 윌리엄스의 다음 상대는 지난해 대회 우승자인 킵 클리스터스(3위·벨기에)다. 클리스터스는 이날 5회전 상대 사만타 스토서(6위·호주)에 2-1(6-4 5-7 6-3)로 이겨 윌리엄스에 이어 4강에 올랐다.

남자단식에서는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같은 스페인 출신인 펠리시아노 로페스(25위)를 4회전에서 3-0(6-3 6-4 6-4)으로 완파했다.

이번 대회에서 치른 4차례 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승 행진을 한 나달은 8강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8위·스페인)와 만나 준결승행을 다룬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미국 선수인 샘 퀼레이(22위)는 앞서 열린 경기에서 스타니스라스 바빙카(27위·스위스)에게 폴세트 접전 끝에 2-3(6(9)-7 7-6(5) 5-7 6-4 4-6)으로 져 탈락했다.

/연합뉴스

호텔

무인텔

1객실 1투차
도심속
평동무인텔!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주세요!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테 마 룸

썬 누메트 두바이 산토리니 씨름
재부라 플라워 피스 완기등 네이처